

A. 해밀턴, J. 매디슨, J. 제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7-1788)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he Federalist Papers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John Jay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알렉산더 해밀턴 · 제임스 매디슨 · 존 제이 지음
김동영 옮김

서울대
"관장도서"
100선



한울

*For Mr. Church from his sister
Elizabeth THE Hamilton*

FEDERALIST;

A COLLECTION

OF

E S S A Y S,

WRITTEN IN FAVOUR OF THE

NEW CONSTITUTION,

AS AGREED UPON BY THE FEDERAL CONVENTION,
SEPTEMBER 17, 1787.

IN TWO VOLUMES.

VOL. I.



NEW-YORK:

PRINTED AND SOLD BY J. AND A. M'LEAN,
No. 46, HANOVER-SQUARE.
M, DCC, LXXXVIII.

Mr. Jefferson's copy

- 1. 로마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사망 (A.D. 14) 이후 처음으로 공화국 탄생(1776)
- 2. 미국 헌법 제정(1787)
- 3. 반(反) 연방주의자와의 논쟁

Alexander Hamilton(1755-1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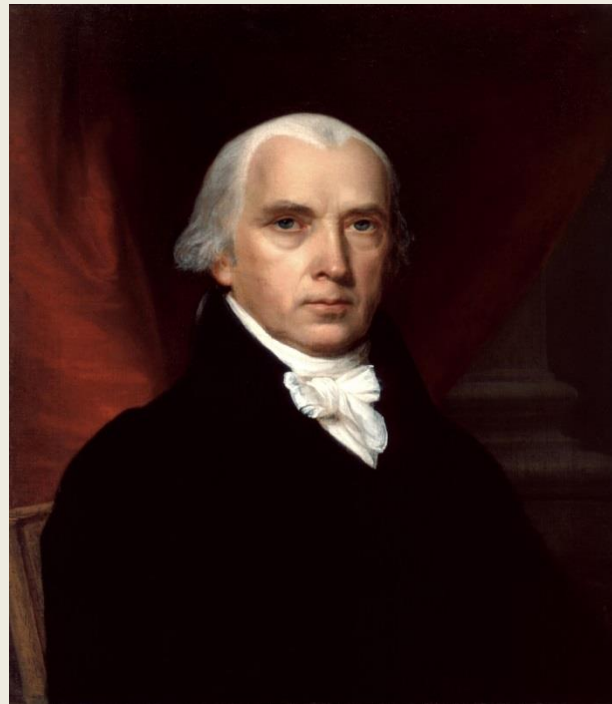
- 영국령 서인도제도에서 혼외 사생아로 출생
- 독립전쟁 기간 중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
- 워싱턴 대통령 하에서 1대 재무장관으로 연방은행 창설
- 세계 최초의 투표기반 정당인 ‘연방당’의 창설자
- 뉴욕 포스트 창립자

Aaron Burr 부통령(제퍼슨 대통령 하)의 결투 신청을 받아 들여 허드슨 강에서 총격 사망(1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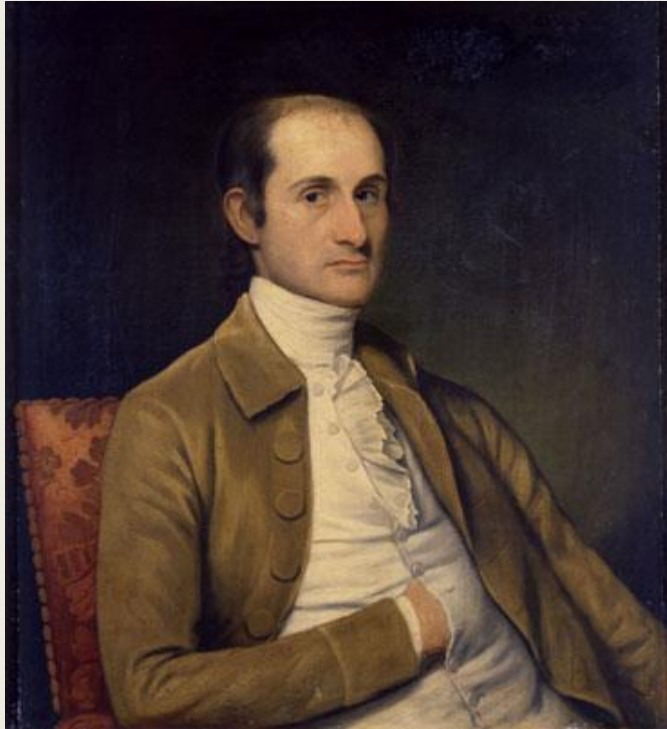


James Madison(1751-1836)

- 버지니아주 대지주
- 독립전쟁 기간 중 버지니아주 의원
- 4대 대통령
- 해밀턴과 결별하고,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민주공화당' 창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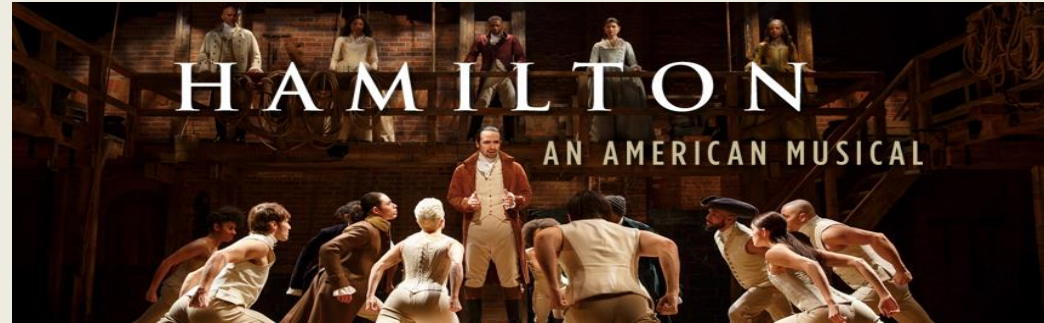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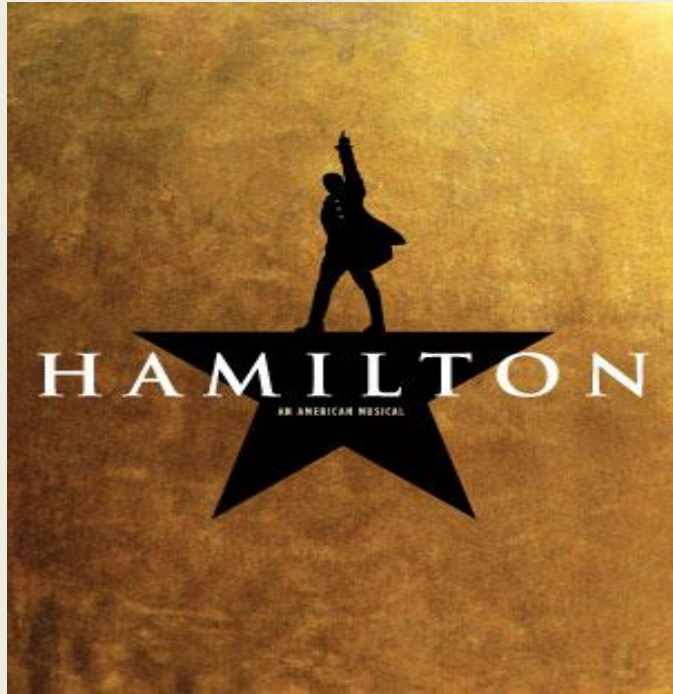


John Jay(1745-1829)



- 뉴욕시 부유한 상인집안 출생
- 독립전쟁 기간 중 스페인대사
- 2대 뉴욕 주지사
- 1대 연방대법원장

Hamilton: An American Musical



세가지 주의(主義)

- 1.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 강한 중앙정부와 중상주의 강조
- 2. 매디슨주의(*Madisonianism*): H→J 변화; 이익집단의 요구 조정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 중시
- 3.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하기 위하여 약한
중앙정부와 중농주의 강조
- * 토마스 제퍼슨(1743-1826) : 독립선언의 기초자, 3대 대통령

FEDERALISTS

1. 1787년 헌법제정회의에 제출된 헌법 찬성
2. 연맹의 존속, 강화 지지
3. 단일한 중앙정부 및 상비군 설립 지지

- “... 이 세 국가에 의해 서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다른 나라의 눈에 미국은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보이겠는가! ... 한 국민 또는 가족이 이렇게 분열될 경우, 반드시 서로 적이 된다.” (J, No. 4, 32면)
- “분리된 주들 사이의 파괴적 투쟁으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전체의 공동의 적인 나라들의 모략과 음모에 희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열시켜 지배하라”” (H, No. 7, 48면)

인간과 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

“너무 많은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이해력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편견에 굴복하며, 말에 말려들고, 미묘함 때문에 혼동에 빠진다.” (H, No. 31, 187면)

인간에 대한 이해

- “인류는 당파로 나뉘고 상호적개심에 휩싸이며 공동 이익을 위해 협조하기 보다는 서로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M, No. 10, 63면).
- “불일치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상호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인류의 대부분의 협의의 역사는 당파와 경쟁과 실망의 역사이자 인간의 특성이 타락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어둡고 타락한 모습으로 분류될 것이다. (M, No. 37, 225면)

-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의와 불신을 요구하는 타락적 측면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존경과 자신감을 정당화 시키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특질들이 있다.”

(M, No. 55, 340면)

“탐욕은 탐욕으로 통제해야” (H)

- “관직을 차지한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국 자신이 그 동안 받아온 봉급을 포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관직에 있는 동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혹을 견디기 힘들 것 ... 자신의 위치가 확고한 사람은 기회의 남용 같은 무리한 위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 그의 탐욕은 탐욕에 대한 방어물이 될 것이다. “(H, No. 72, 429-430면)

“순수한 원칙”?

- “분열과 찬탈은 권력이 끊임없이 마주치는 무서운 딜레마이다.”
(M, No. 38, 234면)
- “진실을 옹호하는 사람이 그들의 적대자 보다 항상 더 순수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심, 반정당 정신, 그리고 더 나쁜 다른 여러 동기들은 어떤 문제에 있어 그릇된 편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옳은 편의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H, No.1, 14-15면)

**“공화주의 정부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에 대한 공화주의 치료법”**

(M. No. 10, 68면)

‘파벌’ (faction)의 해악

FEDERALIST PAPER



'파벌'에 대한 이해

- “파벌” = “전체의 다수이건 소수이건 다른 시민의 권리 또는 지역사회의 영구적이며 전체적인 이익에 역행하는 어떤 공통된 열정 또는 관심의 충동으로 단결되어 행동하는 사람들”
- “파벌의 원인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파벌의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치료할 수밖에 없다.” (M, No. 10. 62면).
- Cf. 해밀턴: 강한 정부권력 강조

지도자

- 1. “선출된 집단의 현명함은 자국의 진정한 관심사를 분별…그들의 국가를 일시적 또는 부분적 이유 때문에 희생시킬 가능성을 가장 낮게 해준다. … 견식 있는 관점과 덕을 소유함으로써 지역적 선입견과 부정의 계략에 대하여 우월…” (M. No. 10, 66-67면)
- 2. “정치체제의 목표 (1) 공익이 무엇인가 판단할 최고의 지혜와 공익을 추구하는 최고의 덕성을 지닌 사람을 지도자로 확보;
(2) 그들이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 강구”
(M, No. 57, 344면)

'반연방주의자'의 비판에 대한 답변

1. 대표제
2. 권력분립

대표제

“자신의 고장의 존경과 신뢰를 믿고 당당하게 자신을 추천할 만큼 장점을 지닌 모든 시민들이다. 국민의 판단을 수고하거나 그들의 의사를 좌절시킬 수 있는 보, 출생, 종교, 직업과 같은 자격의 제한은 없다.”

(M. No. 57, 346면)

대표의 다원성: 다수의 지배의 위험성 경고

1. “사회가 작을 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이권과 정당의 수는 더 적을 것이다. 개별 정당과 이권 수가 적을 수록 더욱 자주 같은 정당에서 다수가 형성될 것이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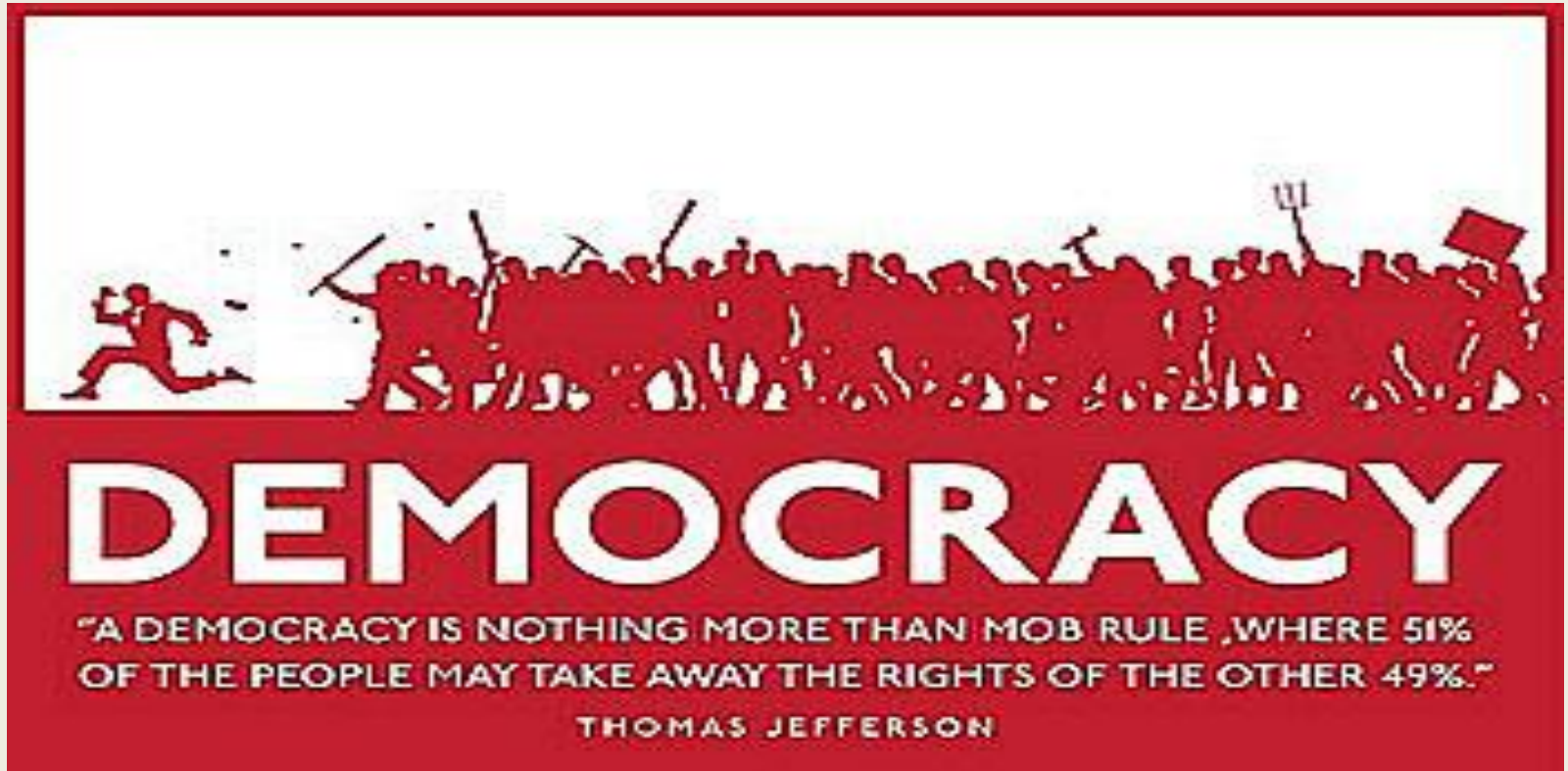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 연맹 내부의 정당의 다양성의 증가는 안전의 증가를 의미한다.”

(M. No. 10, 67면)

2. “이익의 다양성”, “종파의 다양성” “소수는 다수 당파의 의지로부터 덜 위험하게 되고”

(M, No. 51, 319면)

다수의 전제(專制)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적, 내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M, No. 51, 316면)

“정치체제의 목표 (1) 공익이 무엇인가 판단할 최고의 지혜와 공익을 추구하는 최고의 덕성을 지닌 사람을 지도자로 확보; (2) 그들이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 강구” (M, No. 57, 34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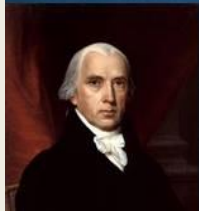
공화적 자유

- “진정한 공화적 자유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할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위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짧은 임기 동안 국민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며, 이 짧은 기간 동안에조차 그 위임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손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M, No. 37, 221면)

별개의 통로를 통한 임명

-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이 그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서로 적절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부의 내적 구조를 설계 ...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는 통로를 통하여 권위의 공통된 원천인 국민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M, No. 51, 315면)
- 사법부 구성시 고려 사항(316면)

**AMBITION MUST
BE MADE TO
COUNTERACT
AMBITION.**



James Madison
4th U.S. President

QUOTEHD.COM

1751 - 1836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M)

- “각 부분을 관장하는 수반들에게 다른 부문의 권리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헌법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는 그의 직책의 헌법적 권리와 결부되어야 한다. “(M, No. 51, 316면)

권력남용의 견제

- 1. “정부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들로 나눔으로써 견제된다.”
(317면)
- 2. “사회의 일부분에 의한 부정으로부터 다른 부분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매우 많은 다른 종류의 시민들을 사회 내에 포함함으로써 다수의 부당한 결합을 ... 어렵게 만드는 것.”
(M, No. 51, 318면)

강력한 대통령 옹호

H. No. 70, 416면.

BY THE WINNER OF TWO PULITZER PRIZES • WITH A NEW INTRODUCTION



THE IMPERIAL PRESIDENCY

ARTHUR M. SCHLESINGER, JR.

"A brilliant, provocative book about the presidency in general and the manner in which the office has appropriated powers never intended for it."

—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INER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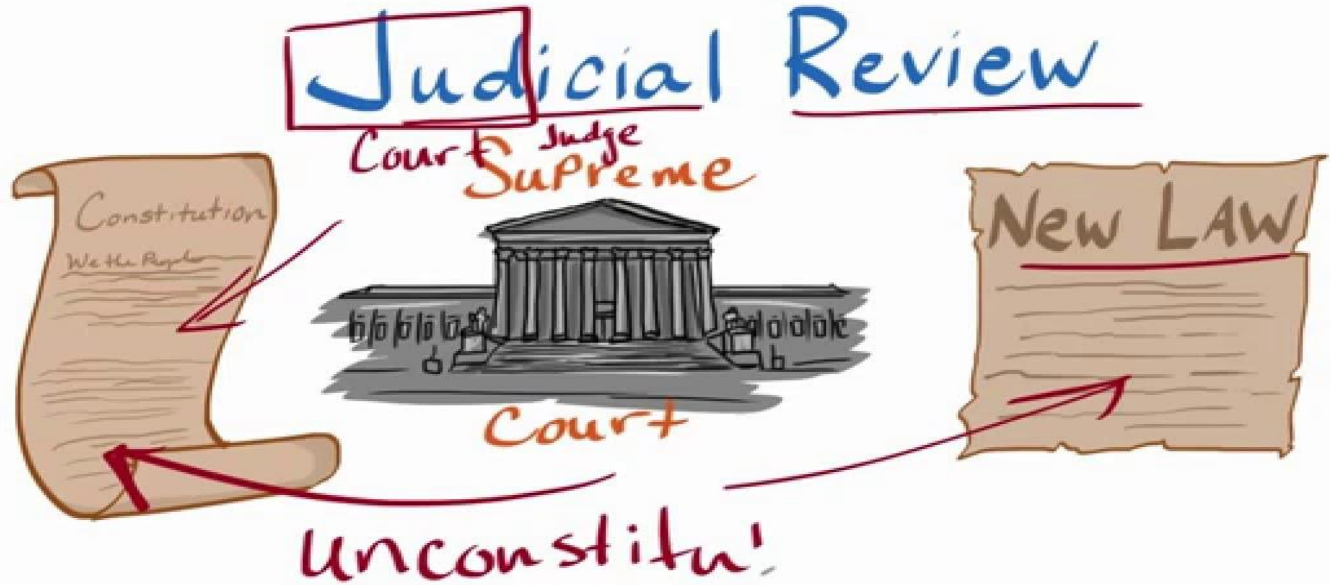
사법부의 역할

- “사법부는 헌법의 정치적 권리를 괴롭히거나 손상시킬 능력이 가장 적다. 행정부는 명예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칼, 즉 수단을 갖고 있다. 입법부는 경비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규제하는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만든다. 반면에 사법부는 칼도 돈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회의 힘이나 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 사법부가 정부의 세 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하다.”
(H, No. 77, 458면)

- “법관의 완전한 독립”
- “입법적인 행위를 무효로 하는 법원의 권한”
-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
(H, No. 77 , 460면)

Judicial Review

History Illustrated



최고법원의 필요성

- “법은 그 진정한 의미와 작용을 해석하고 정의해줄 법원이 없이는 죽어 있는 글자와 마찬가지로. ... 모든 나라는 나머지 법원보다 우월하고, 전반적인 감독권을 소유하며, 마지막 수단으로서 민사 정의의 일관된 규칙을 처리하고 선언하도록 위임된 하나의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H, No. 22, 137면)

Supreme Court



입헌주의 공화국의 구축

헌법=“시민종교”

“상업공화국”(몽테스키외)

“상업적 번영은 국부의 가장 생산적이며
가장 유용한 근원”(H, No. 12, 76면)

Cf. 제퍼슨 & 매디슨의 중농주의